

# 나주SRF 해결 '합의문 작성' 불발

### 오는 9일 11차 거버넌스서 이견 조율 후 '최종 합의문' 작성

### 매물비용 처리·시험가동시 집단발병 인정 부분 이견 조율해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최종 합의문' 작성이 불발됐다.

거버넌스에는 5개 이해 당사자인 SRF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가 참여하고 있다.

홍보전에 돌입하게 된다.

반대위는 SRF 소각이 환경권과 건강권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난방공사는 '안전성 부분'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실시될 주민수용성(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 조사는 환경성조사 측정지 결과와는 관계없이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km 내 법정 리·동 주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투표결과에 따라 SRF발전소 가동 내지는 매물처리(폐쇄) 여부를 결정 짓게 된다.

주민투표는 빗가람동, 남평동, 영산동, 금천·봉황·신평·대도면 등 7개 읍·면·동에 속한 법정 리·동 주민 4만5000여명 중 투표권을 가진 주민 약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투표는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

시할 예정이다.

30%를 차지하는 '공론화 조사'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추진됐던 '숙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시민참여단이 일정 기간 합숙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이다.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최종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경우 환경영향성 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 거버넌스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지켜보는 시민들 6월 3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을 TV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담양군, 메타길 유료화 승소...法 "입장료 징수 정당"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유료화 문제와 관련 법원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6월 28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훈)는 전남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화해권고를 통해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측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는 담양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5월3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재판부는 지난 6월17일 입장료 징수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입장료(현행 성인 기준 2000원)를 1000원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굳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입장료 징수는 어떠한 법적 하지도 없으며, 메타랜드는 공공시설로서 입장료는 단순히 가로수길에 대한 이용료가 아니라 메타길을 비롯한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 개구리 생태공원 등 품격 있는 통합형 하나의 관광지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메타랜드 조성을 위해 국비

20여원을 비롯해 480여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20명이 넘는 관리인원에 대한 수역원의 고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입장료 인하나 각 시설에 대한 개별 입장료 징수는 오히려 이용객(어린이와 청소년 포함)에게 2중, 3중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담양군도 운영적자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군수는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종식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사법부 판단을 계기로 2018년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메타랜드가 자연 자유의 공간이자 생태체험의 거점 관광 명소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출소 2개월' 30대 상습절도범 철창행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서는 슈퍼마켓과 식당 등을 들며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신모(39)씨를 구속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에 나주의 한 슈퍼마켓 유리창을 깨고 물레 들어가 현금 300만원을 훔치고 식당과 주택에도 침입해 현금과 이불 40만원 상당의 전기오븐바이 1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준강도·특수절도 전과 13범인 신씨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나주지역을 들며 슈퍼마켓 3곳과 식당 1곳, 주택 1곳에 침입해 총 5차례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촬영된 CCTV영상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8일 오후 나주의 한 불링장에서 불링을 치고 있던 신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 손님 가장 귀금속 훔쳐 달아난 1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귀금속판매점에서 80만원 상당의 30톤짜리 순금 팔찌 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손님을 가장해 업주에게 팔찌를 보여줄 것을 요구, 팔찌에 착용한 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5월 같은 가게에서 귀금속을 구매한 점을 확인, 카드전표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이후 김씨는 가족들의 설득으로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훔친 귀금속을 분실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와 장물 처분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20대 여성 택시 훔쳐 몰다 사고 내 입건

다이어트 약물을 장기간 과다 복용해 불면증·우울증 증상을 보이던 20대 여성이 택시를 훔쳐 몰다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택시를 훔쳐 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절도·도로교통법 위반)로 A(28·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6월 27일 오전 6시1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변 승강장에서 있던 택시를 훔쳐 30여 분간 몰다가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10년간 다이어트 약물을 정량 이상으로 복용했으며, 그 부작용으로 최근 불면증·우울증·건망증 등이 심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증상을 걱정한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불안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직후 자신을 내리게 하려는 남자친구를 들고자 택시기사가 운전석을 비운 사이 차량 문을 잠그고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택시를 20여분 가량 몰다가 승합차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다, 남자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시약 미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A씨는 경찰에 "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아파트 침입 1300만원 훔친 3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아파트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방범창을 공구로 뜯고 특정 세대에 침입한 뒤 장롱에 보관돼 있던 1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이씨는 훔친 돈을 생활·유용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300만 원 중 900만 원을 회수했으며, 이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